

2017년 3월

선진 우수 산업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 연수기간 : 2017.3.02 ~ 3.09(6박 8일)
- 방 문 국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연 수 단 : 13명(의원 8명, 공무원 5명)



강 령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차 례

| | |
|---------------------------------|----|
| I. 연수의 개요 | 3 |
| 1. 연수의 목적 | 3 |
| 2. 연수국가 및 연수기간 | 3 |
| 3. 연수대상자 | 3 |
| 4. 연수 일정 | 4 |
| 5. 연수 세부내용 | 5 |
| 6. 연수국가 일반현황 | 6 |
| 1) 오스트레일리아 | 6 |
| 2) 뉴질랜드 | 8 |
| II. 시찰내용 및 시사점 | 11 |
| 1. 산림공원 및 생태환경 시찰 | 11 |
| 1)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11 |
| 2) OAKVALE | 13 |
| 3) 포트스테판 | 14 |
| 4) 와이토모 동굴 | 16 |
| 2. 농산물 유통시스템 및 농업정책 방안 비교 점검 .. | 18 |
| 1) M&R FRESH VEGIES | 18 |
| 2) 플래밍턴 마켓 | 20 |
| 3) AGRODOME | 22 |
| 4) SOUTHEN BELLE ORCHARD | 24 |

| | |
|------------------------|----|
| 3. 녹지경관 자원 시찰 | 26 |
| 1) 해밀턴 가든 | 26 |
| 2) 레드우드 수목원 | 28 |
| 4. 민주적인 의회 운영 견학 | 30 |
| 1) 로토루아 시의회 | 30 |
| 5. 도시기반시설 시찰 | 33 |
| 1) 오페라하우스 | 33 |
| 2) 시드니 하버브릿지 | 35 |
| | |
| Ⅲ. 맺음말 | 36 |

I

연수의 개요

1. 연수의 목적

- 국외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과 의정 역량 강화
- 선진 농·축산·산림 관련 등 주요 산업시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여 올림픽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연수국가 및 연수기간

- 연수국가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연수기간 : 2017.03.02(목) ~ 03.09(월) / 6박 8일

3. 연수대상자

| 연 번 | 소 속 | 성 명 | 직위(급) | 비 고 |
|-----|-------|-----|-------|------|
| 1 | 강릉시의회 | 김기영 | 의원 | 위원장 |
| 2 | 강릉시의회 | 박건영 | 의원 | 부위원장 |
| 3 | 강릉시의회 | 이용기 | 의원 | |
| 4 | 강릉시의회 | 최선근 | 의원 | |
| 5 | 강릉시의회 | 이재안 | 의원 | |
| 6 | 강릉시의회 | 김남형 | 의원 | |
| 7 | 강릉시의회 | 김남길 | 의원 | |
| 8 | 강릉시의회 | 배용주 | 의원 | |
| 9 | 강릉시의회 | 홍성태 | 사무국장 | |
| 10 | 강릉시의회 | 심상술 | 전문위원 | |
| 11 | 강릉시의회 | 전경희 | 주무관 | |
| 12 | 강릉시의회 | 이승석 | 주무관 | |
| 13 | 강릉시의회 | 이은선 | 주무관 | |

4. 연수 일정

○ 이동경로 : 인천 ⇨ 오트레일리아(3박) ⇨ 뉴질랜드(3박) ⇨ 인천

○ 세부일정

| 월/일 | 지역 | 교통편 | 시간 | 상세일정 | 기타 |
|--------------------|------------------|---------------|-------------------------|---|----|
| 1일차 3.02 (목) | 강릉 인천 | KE121 | 11:00 15:00 18:45 | 강릉집결지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 | |
| 2일차 3.03 (금) | 시드니 | 전용차량 | 06:55 | 시드니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공원 및 녹지경관 자원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자연유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찰 ■ M&R FRESH VEGIES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기 및 야채 농장으로 시드니 플래밍턴 마켓의 주요 공급처 - 지역 농업 정책 방안을 모색 | |
| 3일차 3.04 (토) | 포트스테판 | 전용차량 | 전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 현장 시찰(OAKV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시찰로 지역 생태관광 방안 모색 ■ 해양문화 현장 시찰(포트스테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색있는 스타톤비치 견학을 통한 해양관광 방안 모색 | |
| 4일차 3.05 (일) | 시드니 오클랜드 | 전용차량 NZ108 | 18:50 23:5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재래시장 비교 시찰(플래밍턴 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최대 농산물 재래시장의 우수 유통시스템 견학 ■ 도시기반시설 견학(오페라하우스, 하버 브릿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에 완공된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아치교(하버브릿지) ■ 시드니 공항 출발 ■ 오클랜드 공항 도착 | |
| 5일차 3.06 (월) | 해밀턴 와이트모 | 전용차량 | 전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밀턴 가든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밀집 지역이 국제 정원 관광 상을 수상한 곳 ■ 생태환경 조성 견학(와이트모 반딧불 동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반딧불과 몇만년의 중유석으로 된 동굴 견학 | |
| 6일차 3.07 (화) | 로토루아 | 전용차량 | 전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토루아 시의회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민주적인 의회 운영 현황 시찰 ■ 뉴질랜드 전통 목장 견학(AGROD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전통 양떼목장 견학으로 농촌관광 방안 모색 | |
| 7일차 3.08 (수) | 로토루아 타우랑가 | 전용차량 | 전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경관 자원(레드우드 수목원)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토루아의 역사가 담긴 산림과 아름다운 경관 정원 ■ 친환경 농장 시찰(SOUTHEN BELLE ORCH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최대 파프리카 농장 견학으로 강릉 농업 정책 모색 | |
| 8일차 3.09 (목) | 오클랜드 인천 강릉 | KE130 | 10:05 18:05 22:00 | 오클랜드 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강릉 도착 | |

5. 연수 세부내용

○ 산림공원 및 생태환경 시찰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세계자연유산으로 산림공원 시찰
- OAKVALE :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생태환경 정책 모색
- 포트스테판 : 해안사구의 독특한 해양환경 시찰
- 와이토모 동굴 : 세계불가사의의 동굴로 생태환경 사업 비교 분석

○ 농산물 유통시스템 및 농업정책 방안 비교 점검

- M&R FRESH VEGIES : 현지 농가의 선진 농업기술 시찰
- 플래밍턴 마켓 : 현지 재래시장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시찰
- AGRODOME : 현지 전통목장 시찰로 농촌관광 정책 모색
- SOUTHEN BELLE ORCHARD : :현지 농업기술과 비교 점검

○ 녹지경관 자원 시찰

- 해밀턴 가든 : 국제 정원 관광 상을 수상한 곳으로 우수사례 수집
- 레드우드 수목원 : 지역의 솔향수목원과 비교 점검

○ 민주적인 의회 운영 견학

- 로토루아 시의회 : 민주적인 의회 운영 현황 비교

○ 도시기반시설 등 시찰

- 오페라하우스 : 아름다운 건축물로 도시 경관 우수사례 수집
- 시드니 하버브릿지 : 도시 경관 우수사례 수집

6. 연수국가 일반현황

1)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 수 도 : 캔버라
- ▶ 인 구 : 약 2,299만 명
- ▶ 면 적 : 768만km²(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유럽의 약 0.8배)
- ▶ 주요도시 : 시드니(462만 명), 멜버른(413만 명), 브리즈번(207만 명)
- ▶ 주요민족 : 유럽계(85%), 아시아계(9%), 원주민(3%), 아랍계(1.4%)
- ▶ 주요언어 :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 ▶ 종 교 : 천주교 (25.3%), 영국 성공회 (17.1%), 불교 (2.5%), 이슬람교 (2.2%) 등
- ▶ 통 화 : 호주달러(AUD, A\$)
- ▶ G D P : US\$ 12,566억(2016년)
-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 ▶ 기 후 : 전반적으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서부지역 40% 및 북부지역 80%는 열대성, 나머지지역은 온대성 기후)

○ 지 리

- 호주의 면적은 약 769만 km²로 한반도의 약 35배이며, 총면적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도시들은 해변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고도는 300m이다.

○ 정 부

- 연방 정부, 6개 주와 2개 테리토리를 관할하는 주 정부, 그리고 약 700개에 달하는 지방 정부, 이렇게 3단계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는 190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단일 정부를 가진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주 정부가 있는 주와 테리토리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단일 국가 체제내에서 존재한다.
- 호주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Queen Elizabeth II)이 국가 원수인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호주의 국기에 연방의 별(The Commonwealth Star), 남십자성(The Southern Cross)과 함께 영국 국기 유니언잭(Union Jack)이 들어있다.
- 영국 여왕은 호주 국민이 선출한 호주 정부의 조언을 받아 여왕을 대리하여호주를 대표 할 총독을 임명 한다. 총독은 총리의 조언을 받아 장관을 임명 한다. 호주의 정부 시스템은 종교적 관용 및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포함 하는 자유 민주주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 기 후

- 기후의 특색은 그 건조성에 있다. 내륙부는 물론 서쪽 가장자리에서 남쪽 가장자리의 바다에 접한 부분까지 반사막의 식생이다. 한편, 남회귀선이 국토의 중앙을 동서로 종단하고 있어, 위도상으로는 국토의 39%가 열대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이 많다. 대륙의 동북 연안부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많고 열대우림을 이룬다. 동남부는 온대 해양성 기후하에 있어

인류에게 쾌적한 기후환경을 보이며, 이 대륙에서의 인구분포의 중심지대를 이룬다. 대륙 남쪽 가장자리의 애들레이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대륙의 서남지역은 온대 겨울비의지중해성 기후이다. 열대에 속하는 대륙의 북쪽 지역에는 우계와 건계의 교체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가 탁월하며, 내륙으로 감에 따라 사막을 둘러싸는 스텝기후(초원기후) 지역으로 변해 간다

○ 사회문화

- 오스트레일리아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복지사회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고령자·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연금과, 실업자·병약자·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수당 등이 있다. 그 밖에 여러 복지단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주택정책이 잘 되어 있어 2008년 현재 호주의 주택 보급률은 70%를 조금 웃돌아 세대의 약 25%의 정도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교외주택의 정원에는 수영장이 사파이어처럼 반짝이고 있고, 요트들이 항만을 가로질러 미끄러져가고 있으며, 도로는 자동차로 붐빈다. 영국계 주민이 많고, 영연방의 하나인 탓에 생활양식이 영국비슷한 점이 많다.

2) 뉴질랜드



- ▶ 수 도 : 웰링턴(Wellington)
- ▶ 인 구 : 약 447만 4천명(2016년 7월 기준)
- ▶ 면 적 : 270,534 km² (남한의 2.7배)
- ▶ 주요민족 : 유럽인(70%), 마오리(14%), 아시안(11%), 남태평양 도서국(7%), 기타(3%)
- ▶ 주요언어 :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 ▶ 종교 : 기독교 약 51%, 및 여러 종교 산재
- ▶ 통화 : 뉴질랜드달러(NZD, NZ\$)
-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 ▶ 주요도시 : 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 (15만)
- ▶ 기 후 :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 국가 개요

- 뉴질랜드는 마오리어(語)로 '길고 흰 구름의 땅'이라는 뜻인 아오테아로아(Aotearoa)라고 불린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져 있다. 본토는 태즈먼해(海)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북섬(11만 4000km²)과 남섬(15만 1000km²)으로 이루어지며, 남쪽으로 스튜어트섬·캠벨섬·오클랜드 제도, 동쪽의 채텀 제도 등 부속도서와 북쪽으로 케르매텍·쿡 제도, 니우에섬, 라울섬, 토켈라우 제도, 남극 대륙에 있는 로스 속령 등도 포함된다. 오스트레일리아·미크로네시아·피지·통가 등 15개 국가와 함께 태평양제도포럼(PIF : Pacific Islands Forum)을 형성한다. 행정구역은 16개 주(region)와 준주(territory)인 채텀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 지 리

- 뉴질랜드의 면적은 27만 평방 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약 1.2배에 이르며, 남위 34도~47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 길이는 약 1600Km이다. 쿡해협(Cook Strait)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주와는 태즈먼해(Tasman Sea)를 사이에 두고 약 2,250km 떨어져 있다.

○ 사 회

-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는 약 455만명으로 그 대부분은 영국계 백인이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상 용어는 뉴질랜드영어(Kiwi English)를 사용하며 마오리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종교는 성공회가 24.3%이다. 뉴질랜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며 현재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통 화

- 뉴질랜드 달러는 보통 N\$라고 표기하며 동전에는 5,10,20,50¢, \$1, \$2짜리가 있으며, 지폐는 \$5, \$10,\$20,\$50,\$100짜리가 있다. 이중에서 \$50와 \$100는 잘 사용되지 않는 큰돈이다. 한때 USD와 1:1 정도의 통화가치가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핵잠수함 파견 반대운동으로 인해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압박으로 현재는 USD의 절반 정도의 가치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호텔이나 은행 등의 공공기관 외에는 USD가 잘 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뉴질랜드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한다. 쇼핑 시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웬만한 카드는 모두 통용되고, 환차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카드 구입이 유리하다.

○ 기 후

-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정반대의 기후로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해양성 기후로 한서의 차가 심하지 않다. 날씨가 자주 바뀌기는 하나 전국에 걸쳐 일조량과 강우량이 충분하다. 여름에는 아열대성기후가 되고 겨울에는 남섬의 남부 알프스에 눈이 많이 내린다. 1년중 가장 무더운 때는 1-2월이며 가장 추운 때는 7-8월이다. 7-9월까지는 우리로서 1년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리나 폭우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여행에 큰 무리는 없다. 오클랜드를 기준으로 여름철 최고 기온은 약 25℃, 최저 기온은 5℃ 정도이다. 뉴질랜드는 1일 사계절이 나타난다고 할 만큼 기온의 차가 심하다. 따라서 한 여름이라도 여행하려면 점프나 긴바지가 필수이다. 북섬은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섬보다 조금 더 따뜻하며, 남섬은 남극에 가까워 북섬 보다 좀 더 추운 날씨이다.

II

시찰내용 및 시사점

1. 산림공원 및 생태환경 시찰

1) 세계자연유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위치한 산악 국립공원으로 유칼리나무로 뒤덮인 해발 1100m의 산간 지대이자 산맥이다. 특유의 푸른 빛과 가파른 계곡과 폭포, 기암 등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자연적으로 나무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

- 블루마운틴이란 이름은 멀리서 보았을 때 진한 푸른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은 카툼바 지역에 위치한 에코포인트로 비슷한 세 개의 사암바위가 융기한 형태로 주술사가 마왕에게서 세 자매를 보호하려고 돌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세자매봉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방위산을 비롯해 블루마운틴의 탁 트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한 날에는 비가 오고 흐린 날씨 관계로 세자매봉의 웅장한 모습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다.



맑은 날의 세자매봉 경관



현지 방문한 날

- 에코포인트에서는 최대 경사면이 52도에 이르는 가파른 협곡을 달리는 궤도열차를 타고 협곡 깊은 곳까지 구경할 수 있었다.

약 52도의 가파른 경사를 자랑하는 시닉 레일웨이는 호주 초기 정착자들에 의해 개발된 폐탄광을 폐광하지 않고 예전 탄광의 모습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



궤도열차



예전 탄광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

○ 시사점

- 호주의 산림·환경 정책은 자연을 파괴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용하던 궤도열차를 개보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편하게 블루마운틴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산림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전해주었다.

2) OAKVALE

- 포트스토펜 근교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호주 파충류 공원으로 호주에서 가장 친근한 동물인 코알라, 캥거루와 파충류 등 야생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 이곳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거리감을 가지고 보는 곳이 아니라 동물과 직접 교감하는 자연 방목적으로 잔디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캥거루와 코알라에게 먹이를 주며 어울릴 수 있었고, 알파카 등과 같은 특이한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유칼리투스 나무위에서 자고 있는 코알라



캥거루에게 먹이주기 체험

- 너무나 신기한 빛깔을 지닌 뱀, 주위 사물과 비슷한 색깔로 위장하는 도마뱀 및 파충류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야생 조류들을 접해볼 수 있는 곳이었다.



트랙터를 이용한 동물원 투어 트럭

○ 시사점

- OAKVALE 시찰을 통해 호주사람들이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도 우리 지역의 산림과 해양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과 그들의 터전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환경개발은 삼가야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3) 포트스테판

- 시드니에서 북동쪽으로 160km 지점에 위치한 대규모 자연항이다. 최대 길이는 24km, 최대 너비는 6.5km, 수면 면적은 118.9km²으로 시드니항(港)보다 규모가 더 크다. 1770년 5월,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지나가면서 영국 해군 본부장이자 친구였던 필립 스티븐스 경(卿)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 본래 화산이었던 두 개의 구릉 사이로 좁은 항구 입구가 있다. 남쪽 곳인 토마리(Tomaree)가 평균 해면 120m, 북쪽 곳인 야카바(Yacaba)가 210m로 높이 솟아 있다. 항구 주변은 대체로 수심이 얇고 모래가 많지만 큰 배를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수심이 깊은 곳도 있다. 113km의 긴 해안지역 중 3km 구간에 2만 6000명 이상의 주민이 몰려 산다.

- 농사를 짓기에는 토양이 척박한 편이어서 큰 도시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요 항구로 부상하지 못했다. 항구 서쪽 해안과 북서쪽 해안 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목지대이고, 항구 어귀에 가까이로 지미스 해변(Jimmys Beach)부터 미올강(Myall River) 어귀까지 약 5km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 1970년대 이래, 시드니로부터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되면서 휴양지와 관광지로 인기가 높아졌다. 2005년 12월, 이 지역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트스티븐스-그레이트레이크해양공원이 지정되었다.
- 프랑스 남부지역과 비슷한 기온과 토지를 가진 포트스테판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곳 와인은 많은 미식가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



넬슨 베이 항만시설 시찰

- 시사점
 - 넬슨 베이에서 크루즈를 타고 1시간 30분 가량 포트스테판을 둘러보는 데,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돌고래를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어 신비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바다와 사막(해안사구)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스타크톤비치에서의 모래썰매를 탈 수 있는데 뜨거운 사막에서 썰매를 구상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한 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례라고 할 만 하다.



사막(해안사구)투어 사륜버스



사막(해안사구)에서 모래썰매 체험

4) 와이토모 동굴

- 개똥벌레의 일종인 ‘글로우웜(GlowWorm)’이 서식하고 있는 동굴로 동굴 아래 넷물이 흐르고 있어 배를 타고 그로우 워를 관광한다. 동굴 내부는 수많은 광장과 작은 방으로 나누어지며 천장은 종유석, 바닥에서는 석순이 마치 숲을 이루듯 늘어서 있다. 특히 반딧불이의 유충이 발하는 미광(微光)이 땅속에 선경(仙境)을 이루어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동굴이다.



독특한 모양의 자연친화적인
와이토모 동굴 입구



몇천년의 시간이 흘러
위 아래가 연결된 종유석

○ 와이토모는 마오리어로 “구멍을 따라 흐르는 물” 을 의미한다. 고대 미로와 같이 복잡하게 이어진 석회 동굴로 지진과 화산분출에 의해 형성되어 왔으며 석회암층은 해저로부터 밀려올라와 비틀어지고 균열되었다. 거대한 덩어리를 분리하는 틈과 연결부분을 통해 이 사이로 물이 흐르게 되어 점차 침식작용을 거쳐서 이루어진 동굴이다. 동굴 안을 수놓은 생성물들은 수백 년간에 걸쳐 형성되었는데 1㎡의 종유석을 형성하려면 약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동굴 안에는 뉴질랜드에서만 서식하는 아라크노캄과 루미노사(반디벌레 곤충)가 있는데 끈적끈적한 거미줄 같은 먹이 줄로 날아다니는 다른 벌레를 유인하여 잡아먹기 위해 빛을 발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반짝이는 은하수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빛과 소리에 민감한 반딧불이 보호를 위한
소음, 사진촬영, 후레쉬 사용 금지 안내판



동굴과 그 주변은 최대한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 시사점

- 빛과 소음에 민감한 이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반딧불이의 신비로운 모습을 찍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지만, 킁킁한 동굴에서 수만년에 걸쳐 생명을 유지해 가는 작은 생물에게서 생명에 대한 경외와 애잔한 감동을 받았다.
- 그리고, 이런 생물 보호를 위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이곳의 원주

민인 마오리족에게 사업권을 주어 자연과 사람, 그리고 원주민과 정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또한 이 동굴은 후손들을 위해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캄캄한 동굴 안에서 은하수와 같은 신비로운 반딧불이 모습 체험을 도와준 원주민 뱃사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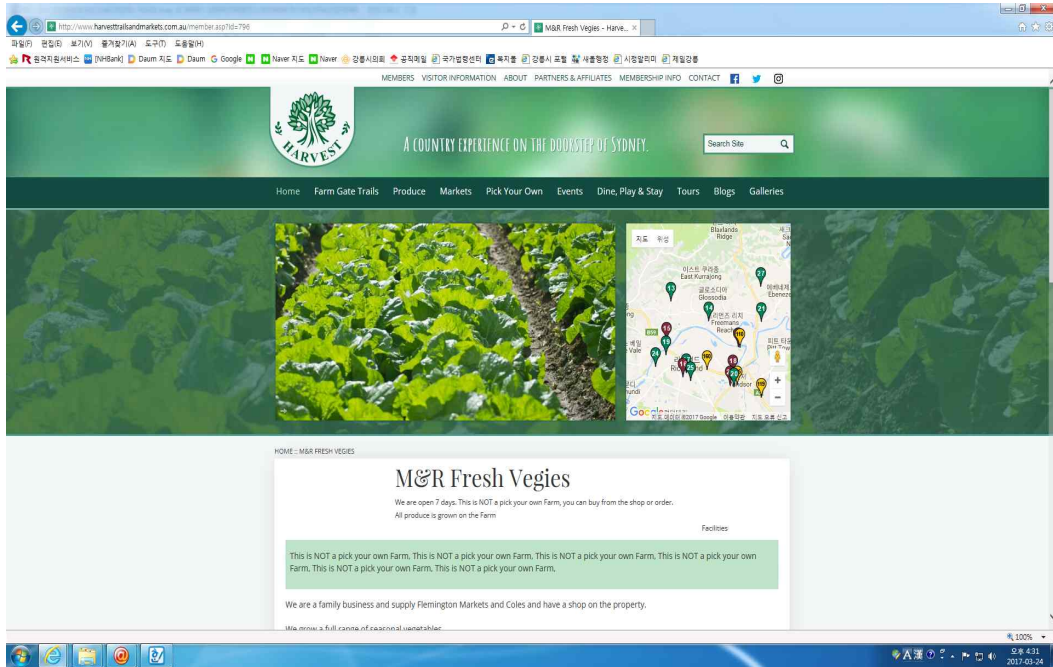
반딧불이의 신비한 모습이 준 감동을 간직하며

2. 농산물 유통시스템 및 농업정책 방안 비교 점검

1) M&R FRESH VEGIES

- 주소 : 613 Terrace Rd Freemans Reach NSW 2756
- 홈페이지: <http://www.harvesttrailsandmarkets.com.au/member.asp?id=796>
- 시드니 근교에 있는 농장으로 농장주와 가족 2명 그리고 3~5명의 직원들이 약 11ha의 농지에서 양상추, 양배추, 옥수수, 호박, 비트 등 10여가지의 신선한 야채들을 일년내내 재배하고 있음.
- 시드니 최대의 농산물유통센터인 플래밍턴 마켓과 호주 대형마트인 콜스(Coles)가 주요 공급처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고 직접

현지 농장에서도 신선한 야채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M&R Fresh Vegies 농장 홈페이지



현지 농장주로부터
농장운영 및 재배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음



농약 및 제초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케일

- 이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모든 야채들은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야채들이며 계절에 따라 재배하는 야채 및 채소들이 달라진다고 한다.

- 호주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 중 하나로 GDP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의 농지는 국토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 면적의 크기에 비해 인구는 적은 편이어서 농업생산량의 1/3만 자국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2/3는 국제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 시사점
 - 호주의 농업 정책은 농업인(생산자)의 지원보다는 농업기술 생산성 향상과 농산품 수출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리가 방문한 농장의 주인도 정부에서 받는 지원을 없으며, 간혹 대출을 받아 농업기계를 구입할 경우 약간의 대출 이자 할인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농민들에게 퍼주기 식 정책보다는 농민 스스로 6차 산업과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 플래밍턴 마켓

- 경매가 없는 독특한 유통구조를 가진 시드니 최대도매시장인 시드니 플래밍턴 마켓은 1810년에 41헥타르 규모 건립되어 800여개의 각종 점포에서 각종 채소, 과일, 육류, 화훼 등 판매하고 있다.



플래밍턴 마켓 배치도



플래밍턴 마켓 외부 전경

- 플래밍턴 마켓은 생산품 시장, 화훼 시장, 재배자(사육자) 시장, 쌀 시장, 신선식품 시장, 물물교환 시장 등 총 6가지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인구 450만명이 거주하는 시드니에 농산물 공급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도매시장을 통해 매년 약 250만톤의 과일과 채소가 거래가 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호주달러 (한화; 3조 7백20억원)에 이른다.
- 이곳 도매시장은 농업인들과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유통을 7~8단계에서 3~4단계로 줄여 생산농업인은 소득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 한 장소에서 생산, 포장, 수출, 식품가공 및 저장, 출하, 농자재 제품까지를 포함한 종합쇼핑몰의 기능을 함으로써 농산물 분배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여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신선한 청과물을 판매하고 있는 플래밍턴 마켓



농산물 뿐만아니라 일상용품도 싸게 팔고 있는 플래밍턴 마켓

○ 시사점

- 현재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 이처럼 우리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단계를 줄여 생산자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3) AGRODOME

- 아그로돔은 낙농국가 뉴질랜드 전형적인 농장 모습을 체험 할 수 있는 곳으로, 로터루아 시가지 북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1972년에 조성되어 160ha 이르는 넓은 면적에 19종의 양 뿐만 아니라, 양몰이개, 염소, 알파카, 타조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농장이다.



아그로돔 공연장



아그로돔 목장에서 사육 중인 양떼들

- 하루에 3번 귀여운양들의 쇼와 양털깎기 시범, 목양견들의 양몰이쇼도 펼쳐지며, 소젖을 짜고 새끼 양에게 우유를 먹이는 목장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우유주기 체험



트랙터를 이용한 목장투어

- 또한 트랙터를 개조하여 트레일러(개방식)를 부착하여 방문객을 태워서 농장 내부를 돌아보며, 양, 알파카, 소 등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관광을 운영하고 있고 있으며 그외에 헬리콥터비행을 비롯하여 번지, 자유낙하 익스트림 등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 매해 3만명이상의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답게 다국어 제공되는 통역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관람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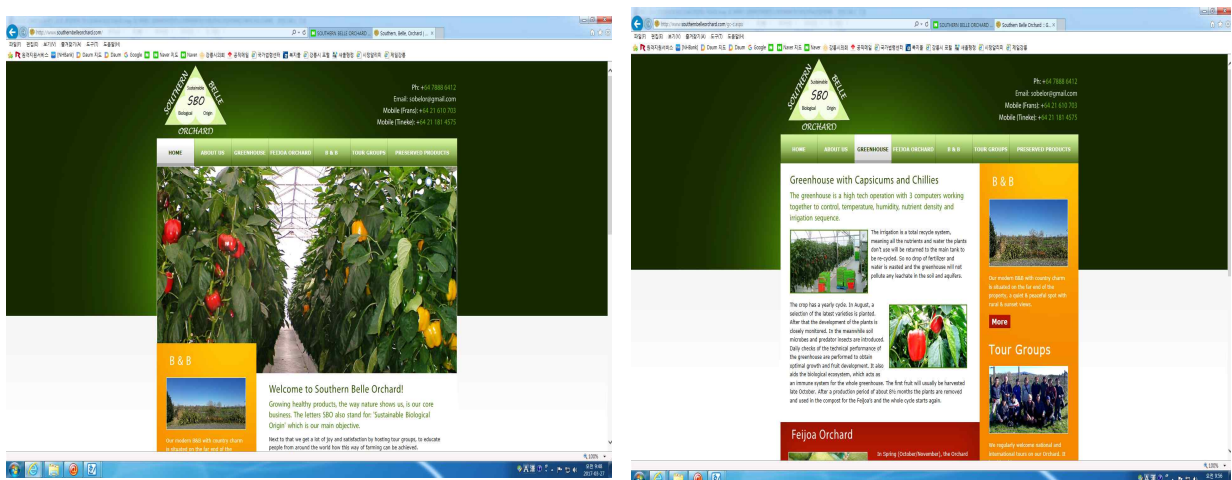


8개 국가의 언어로 통역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시사점
 - 아그로돔 목장의 양털깎이 공연은 처음에는 지역의 양털깎이 업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시작하였다가 공연의 형태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렇게 조그만한 발상의 전환이 대단한 관광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있는 이와 비슷한 양떼목장들 또는 농촌체험 마을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SOUTHEN BELLE ORCHARD

- 주소 : 418 Hinuera Rd, RD 2, 3472 Matamata, NZ.
- 홈페이지: <http://www.southernbelleorchard.com/>
- 로토루아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마타마타 지역에 위치한 농장으로 파프리카, 고추, 피조아, 블루베리 등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며 농장주의 가족 4명이 경영하고 있다.
- SOUTHEN BELLE ORCHARD 농장주는 2003년 네덜란드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 5ha의 이 농장을 설립하였다. 이민 오기 전 네덜란드에서는 27년간 농업연구소에서 토양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아내분도 화훼에 관한 일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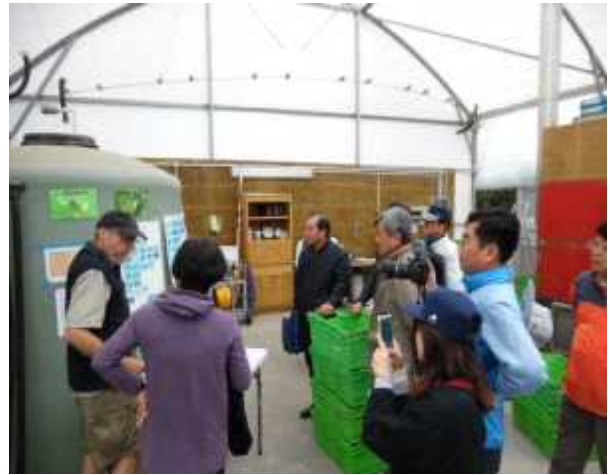
SOUTHEN BELLE ORCHARD 농장 홈페이지에 재배식물과 재배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 SOUTHEN BELLE ORCHARD 농장은 친환경적으로 식물들을 재배하고 있다. 농장주 전공이 토양인 만큼 화학적 비료는 사용하지 않고 나뭇잎과 미생물을 이용하여 친환경 거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병충해는 천적 곤충들을 이용하여 예방하고 있다.
- 식물재배에 필요한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온도설정, 통풍 및 환기 등은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적 조절하고 있다. 또한 한번 사용한 물과 영양분은 바로 버리지 않고 주 탱크로 재순환 시스템을 갖추어 재활용하고 있다.



영양분 및 수분, 온도 등
온실 자동 조절 시스템



천적 곤충을 이용한 병해충 방지와
유기농 비료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농장주

- 뉴질랜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약 5% 정도이다. 농업 중에서도 낙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뉴질랜드 인구가 적어 내수보다는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채소나 과일도 낙농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SOUTHERN BELLE ORCHARD 농장에서도 연간 80톤의 파프리카를 생산하여 4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농장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설명 중인 농장주



다 자란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다.

○ 뉴질랜드 정부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하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역할은 뉴질랜드의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제안과 사업계획, 뉴질랜드 생물안전 통합체계의 리더십 구축, 국가산림자산의 관리, 뉴질랜드 식품을 이용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보호, 뉴질랜드에서 생산 혹은 소비되는 식품(수출입 식품 포함)에 대한 효율적인 식품규제, 식품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영향력 행사, 국제교역 자유화와 거래기준 확립 및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적용에 관한 협정(SPS)의 보장, 국경지대 및 국내환경에서의 생물안전성 유지 등이나 다만 연구비나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련된 대책과 병해충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며, 대규모의 비상사태와 기상재해 및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지원을 한다.

○ 시사점

- 우리 농업 정책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재배 작물과 기술에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을 이전하여 보다 많은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립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으며,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도 보다 나은 교육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배기술 등을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녹지경관 자원 시찰

1) 해밀턴 가든

- 해밀턴 가든은 1960년 해밀턴 시에서 조성했으며 1971년 첫 번째 세계 장미박람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 해밀턴 가든은 전체 58ha 규모로, 5가지를 주제로 한 정원들이 각기 다른 색깔을 띤 채 사람들을 맞이한다. 파라다이스 가든에서는 중국 영국

일본, 미국, 인도, 이탈리아의 보편적인 정원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프로덕티브(Productive) 가든에서는 먹을거리와 관련된 허브정원과 채소밭, 뉴질랜드의 식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 이밖에 정원용 화훼식물을 위주로 한 컬티바(Cultivar) 가든, 산림지, 덩굴, 벨리 산책로 등이 있는 랜드 스페이프(Land scape)가든, 그리고 향수의 원료 식물을 심어놓은 판타지 가든도 있다.



해밀턴 가든 안내판

-해밀턴 가든은 아직 진화 중(미완성)이라네요!



해밀턴 가든 코스 안내도

- 1960년대 해밀턴의 쓰레기 밀집 지역이었던 해밀턴 가든은 2014년 올해의 국제 정원 관광 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퍼시픽 로즈볼 페스티벌(Pacific Rose Bowl Festival), 해밀턴 가든 여름페스티벌을 비롯한 2,000여 건의 행사가 진행되는 명소가 되었다.
- 또한 해밀턴 가든은 단순히 아름다운 수목과 화초들을 보여주는 다른 유명한 식물원들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 바로 ‘농업’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해밀턴 시는 농민연합(Federated Farmers of NZ)을 비롯하여 낙농협회(Dairy NZ), 여성농업인회 등 영향력 있는 농민단체들이 포진한 농업의 메카다. 이런 배경으로 해밀턴 가든은 뉴질랜드 사

람들의 식생활을 이끄는 채소들을 키우는 ‘키친 가든’ 과 지속 가능한, 유기농의 중요성을 알리는 ‘유기농 정원’ (Sustainable Backyard Garden) 을 통해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이끌어 낸다.



해밀턴 가든의 나이 지긋하신 현지 전문 가이드



아름다운 해밀턴 가든의 모습

- 해밀턴 가든은 아직 미완성이다. 58ha의 방대한 규모의 정원 속에 작은 정원이 계속 새롭게 생겨난다. 그리고 그 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적어도 조성비용의 80%가 적립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해밀턴 가든은 계속 진화 중인 정원이라고 한다.
- 1960년대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가 이렇게 아름답고 세계적인 정원으로 탈바꿈한 것을 보면서 강동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우리시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해 주었고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2) 레드우드 수목원

- 레드우드 수목원은 로토루아 근처에 위치한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인공수목원으로, 세계 2차대전에서 희생된 뉴질랜드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산 레드우드 품종을식재하여 지금의 울창한 수목원이 되었다.

- 50만평의 면적에 아름드리나무들이 무성하며, 특히 메타세콰이어의 경우 80년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직경이 5m이상이고 높이도 80~120m이상으로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때문에 일년에 1.8m씩 자랄 정도로 생육이 빠르며 보통 한국에서 50년은 자랄 크기의 나무가 이곳에선 25년이면 자란다고 한다.



레드우드 수목원의 안내판



아름드리 나무위의 트리워크(Treewalk) 체험

- 수목원의 산책코스는 15분 정도의 코스부터 8시간 코스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객이 찾기 쉽도록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레드우드 수목원에 대해 설명해주는 가이드



마오리족의 전통문양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의 화장실

○ 레드우드 수목원은 엄청난 규모만큼이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만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있었으며, 특히 마오리족의 전통문양을 이용하여 주위 자연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설치한 화장실을 보면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자연을 얼마나 아끼며 보호하고자 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 시사점

- 우리도 강릉 솔향수목원을 보다 주위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모습으로 시설을 설계하여 최대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미래 세대에게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관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4. 민주적인 의회 운영 견학

1) 로토루아 시의회

○ 로토루아시 현황

- 도시명 : Rotorua市
- 인구 : 78,600명(2015. 12. 기준)
- 면적 : 2,614.9km²
- 언어 : 영어, 마오리어
- 특성 : 마오리 문화의 중심지
- 연혁 : 뉴질랜드 노스섬 중북부에 있는 행정구로, 로토루아 호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1870년대 초에 취락이 형성되어 1883년 특별구로 지정되고, 1922년에 자치시, 1960년대 초에 시로 승격되었다.

○ 로토루아시 개요

- 로토루아는 원래 마오리어로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를 의미하며, 이곳이 유명한 관광지인 데에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전

통문화가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고 화산지형이라 곳곳에 유황냄새가 나는 간헐천이나 온천이 있다.

- 로토루아는 뉴질랜드 관광의 탄생지라 불릴 만큼 관광에 대한 비중이 높으며, 매년 2백만명의 관광객이 로토루아를 찾고 있고 그중 70%는 외국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다. 로토루아 지역주민의 약 25%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등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과 수입은 관광에서 이루어지며, 그 외에 울창한 숲과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임업과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로토루아 시 전경



로토루아 시의회 앞에서

○ 로토루아 시의회 운영 현황

- 시의원 선거는 3년마다 실시하여 1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고 그 중 의장으로 선출된 시의원이 시장을 겸임하며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시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고 있다.
- 로토루아 의회의 회기는 한 달에 6일 정도이며, 시의원 모두 각자 생업을 위한 직업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며 대부분의 예산집행은 중앙정부에서 집행하고 시의회는 지역 민간사회 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 지방의회에는 비례대표가 따로 없으며, 시장과 시의원 모두 정당 공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전체 공무원들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를 공유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체계이다.

- 한국과 달리 모든 건축 및 토지관련 허가권은 지방정부에 있고, 지방 정부의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시장(General Manager)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자체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인사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 뉴질랜드의 지방자치단체는 카운티(County), 버러(Borough), 타운(Town) 등이 있으며,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선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 정부는 상당히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로토루아시에 대해 설명 중인
Mark Gould 시의원



Mark Gould 시의원과 함께

○ 로토루아시의 역점 사업

- 건국의 역사가 짧은 뉴질랜드로서는 마오리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중요시하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보호하는 정책(국회의원 원주민 할당제 등)을 펼쳐 원주민과 함께 발전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나라 특성에 맞게 농장관련 사업과 관광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현재 마오리는 뉴질랜드 전체인구의 15%정도를 차지하며, 정부에서 마오리부족 보존에 힘쓴 결과, 마오리족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뉴질랜드는 마오리문화를 인정하고 통합을 선택한 나라로 로토루아의 마오리족들은 이곳 마오리 문화를 알리는데 자부심이 높다.

○ 시사점

- 로토루아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지열·화산지대라는 지역특성, 마오리 전통문화를 관광 자원화하여 뉴질랜드의 내로라하는 관광명소로 발전하였다. 뉴질랜드 문화는 곧 마오리 문화라고 할 만큼 마오리 전통문화를 정책적으로 보존해 왔으며, 이는 뉴질랜드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원주민인 마오리족에게도 의석을 배분하여 정치에 참여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우리도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만큼 로토루아 시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정책들은 우리 시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5. 도시기반시설 등 시찰

1) 오페라하우스

- 세계 3대 미항 시드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 오페라하우스는 1957년 호주정부에서 개최하는 국제 공모전에서 32개국 232 점의 경쟁을 물리치고 선발된 덴마크의 건축가 욘우촌이 설계한 작품으로 1959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1973년에 완성하였다.
- 106만 5,000장의 타일을 요트모양으로 만든 지붕모양의 오페라하우스는 14년에 걸친 긴 공사와 총공사비 A\$ 1억 2000만 달러를 들여 건축하였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주변 노천 카페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2018동계올림픽 홍보

- 오페라하우스는 건물 높이가 67m, 지붕 무게만 해도 27,000톤이 넘는 거대한 건축물이다. 내부에는 오페라 극장, 콘서트홀, 드라마 극장, 소규모 연극장이 있다. 그리고 세미나 강연장도 있으며, 전위 실험예술 스튜디오, 회의장 등이 구비되어 있다. 또 여느 극장들과 마찬가지로 막간에 관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카페나 식당도 마련되어 있다.

[오페라하우스 기본 현황]

| 구 분 | 설 명 | 구 분 | 설 명 |
|---------|--------------|---------|----------------------------|
| 설립연도 | 1973년 | 주용도 | 오페라 극장 |
| 건설 기간 | 14년(당초계획 4년) | 건설비용 | 1억 2000만 달러 |
| 건축가 | 움 우촌 | 발주처 | New South Wales Government |
| 건물 높이 | 67m | 건물길이 | 183m |
| 전체지붕 무게 | 27,230ton | 건물 폭 | 118m |
| 지붕외부 소재 | 세라믹 타일 | 연간 공연횟수 | 3,000회 |

- 시드니의 세계적 위상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기 전과 후로 뚜렷이 구별 된다. 오페라 하우스는 작은 도시 시드니 바다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유명한 음악가와 가수들의 공연을 포함하여 연간 3,000회 이상의 공연이 펼쳐지고 2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 기이함과 아름다움을 지닌 오페라 하우스는 외양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뛰어나서 종합 극장으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20세기 이후의 건축물로는 유일하게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시사점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강릉시에게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랜드마크는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도시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시드니 하버브릿지

- 싱글 아치 다리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로 시드니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3대 건축물 중의 하나이며, 해면에서 도로까지의 높이가 약 59m로 이 대형다리는 마치 옷걸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넓은 옷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 1932년 완성된 8차선의 차도와 전철로, 인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아치형 다리는 1988년에야 비로소 차관으로 들여온 공사비용을 완불할 정도로 엄청난 공사이기도 했지만, 경제공황 당시 호주의 경제를 살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의 절묘한 조화



세계적인 건축물 하버브릿지 앞에서

- 시드니 하버 브리지는 길이 503m, 너비 49m에 정점이 134m 높이로 솟아 있는 단일 구간 강철 아치교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일 1,400여명의

노동력으로 9년동안 걸려서 만든 세계적인 철교로 현재 하루에 약 75,000여대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 다리가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페인트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색을 입힐 때 드는 페인트양은 30,000리터로 약 60여 개의 축구경기장 칠에 드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 하버브릿지는 차도와 철도 인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인도의 폭이 넓어 관광과 현지인들의 조깅코스 등으로 활용되며, 전세계 관광객들이 다리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브릿지클라이밍, 번지점프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시사점
 - 이처럼 세계적인 건축물을 그냥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일차적인 면에서만 다가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Ⅲ

맺음말

- 국외 의정연수는 비록 역사와 문화는 다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기대와 설렘을 준다. 이번에 방문한 뉴질랜드와 호주역시 건국의 역사는 짧지만, 농·축산, 산림, 해양 등 주요 산업 정책에서 선진국이기에도 더욱 기대한 바가 컸다. 이번 연수를 통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주요 산업시설을 체험하고 선진사례를 배우면서 강릉시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을 위해 견문을 넓히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첫 번째 점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연수 중에 방문한 블루마운틴, 포트스테판,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레드우드 수목원, 아그로돔 농장 등 주요 관광지는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원과 습지들을 보면서 개발보다는 있는 그대로 두고, 개발하는 경우에도 환경 친화적으로 하여 이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농·수산 식품 검역 등 입국심사가 왜 그렇게 엄격하고 까다로운지에 대해 수궁하게 됐으며, 어쩌면 와이토모의 신비로운 반딧불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 호주와 뉴질랜드의 농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책이 거의 없는 자유경쟁을 실시하는 농업을 경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에 대한 정책을 주로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농산물시장에서 직거래나 위탁거래를 실시하면서, 중간상인의 유통이 없도록 만들어 농산물의 판매이익이 최대한 생산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이 우리와 달라 보였다. 이런 체제하에선 농민이 자생력을 발휘하고 어려운 경영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의 농업과 연계된 관광측면을 보면서 우리시의 농촌마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호주와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로써,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 이들 나라의 의회제도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달랐다. 연방·주·지방정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시의회와 지역사회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잘 연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통신, 복지, 고속도로를 관장하고 주정부는 경찰, 학교, 병원, 대중교통 및 주요도로, 주택공급 등에 관한 서비스를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수거, 주차위반, 체육

시설 및 어린이 시설관리, 도서관, 예방접종, 요식업 위생검사, 나무보존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행정은 일정한 자율성을 주어 행정전문가에게 맡기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만 Council을 열어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다. 행정전문가는 의원의 임기와 다르게 5년 단위로 임용하며, 실적에 따라 연봉과 연임 여부를 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정부나 연방정부와의 관계도 소속당의 지시를 받거나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의회에 올라오는 안건의 95% 정도는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호주나 뉴질랜드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이끌게 한 것은 정부정책도 있겠지만 국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수를 진행하는 동안 자동차 경적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으며, 보행자나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항상 여유있는 모습,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이래서 선진국이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는 강릉시민들이지만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호주와 뉴질랜드 사람들과 같은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할거라 느껴졌다.

- 끝으로 이번 국외 의정연수는 6박 8일 동안 2개 국가를 방문하는 빠듯한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농·축산, 산림, 해양, 의회제도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분들이 일정대로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우리 연수단을 위해 성심껏 브리핑 해준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연수에서 얻게 된 소중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